

# “60→65세 정년 연장시 추가 고용 연간 59만명”

### 한경협, 부산대 교수에 연구 의뢰...추가 고용 비용 연간 30조 넘어 “청년 90만2000명 고용할 수 있는 수준...도입은 기업 자율 맡겨야”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일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 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되는 규모는 5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 돼 추가 고용 규모도 59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

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했다.

비용에는 예상 임금과 같은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사업부 부담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됐다.

산출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추가 고용 비용은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2000억원까지 불어났다. 한경협은 이와 관련,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 비용 30조2000억원은 25~29세의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석 교수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2023년 고령자고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업종 간 55세 이상 고령자 비중 격차는 최대 62.5%포인트(농림어업 69.2%·정보통신업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경협이 지난달 중업원 300인 이상 국내 기업 121곳의 인사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에서 응답 기업 67.8%가 정년 연장 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일부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2022년 정년을 만 60세에서 61세로 높인데 이어 지난 3월 62세로 더 연장했으며, 크라운제과와 인천공항공사도 정년을 각각 만 62세, 61세로 늘려 운용 중이다.

중견기업에서는 소신여객자동차가 2016~2019년 두차례 걸쳐 만 60세였던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했다. 여객 업체인 대진여객도 지난해부터 정년을 만 63세로 늘린 상태. 일률적 정년 연장이 부담스러운 기업은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대안을 채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가족·연인과 함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 광주신세계, 포토존 조성

광주신세계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야외광장 크리스마스 빌리지', '아트월' 등 포토존을 조성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카드 발송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

우선 31일까지 광주신세계 정문 앞 야외광장에서 크리스마스 빌리지를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빌리지는 '친구와 함께 만들던 눈사람', '최고로 달콤한 선물', '가족·연인과 함께하는 테마파크', '어린 시절 밤새며 기다리던 산타' 등 6개 테마를 뜻하는 이글루들로 구성했으며, 오후 10시까지 점등돼 크리스마스 테마 마을을 연출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 내부에서는 정승원 작가가 선보이

는 '아트월'을 마련했다. 31일까지 1층 광장에서 만날 수 있으며, 광주신세계갤러리의 연말기획전인 '초대하는 마음'과 연계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꾸몄다. 건물 내외에 다양한 포토존도 마련돼 '크리스마스 빌리지 SNS 인증샷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5일부터 15일까지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연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카드 발송' 이벤트도 전개한다.

김경훈 광주신세계 영업기획팀장은 “12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날 수 있도록 백화점 곳곳에 다양한 공간을 연출했다”며 “야외광장의 크리스마스 빌리지와 아트월 등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추억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하남산단 내 기업 반대 불구...광주시 민주노총 이전 강행

### 1년 이상 직원 교육 중단 등 문제

광주시가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하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단 내 기업들의 반대와 함께 예산 5억원 이상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6000명이 넘는 직원 교육도 중단해 야 합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일보 11월 19일 9면>

2일 광주시와 하남산단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에 '복지관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한 시설개선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현재 공실인 지하 1층(770㎡)을 5억4000여만원에 들여 보수한 뒤, 3층에 위치한 취미교실·전산교실·직업훈련시설을 지하 1

층으로 옮겨 운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3층 공간(585㎡)은 11월 중으로 임대 공고를 내라고 했는데, 입주 자격요건을 양대 노총 광주지역본부로 한정하라고 명시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임동근로자복지관 운영기관이며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는만큼, 사실상 민주노총 광주본부를 입주시키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가 민주노총 광주본부 이전을 추진하게 된 건 20년 전부터 지원해왔던 사무실 임대료 5500만원을 내년부터는 지급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으로부터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관련된 내용 제출을 요구 받은 광주시가 임대료 지원이 어려워지자 시 소유 건물인 하남근로자중

합복지관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하남산단 입주 기업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시는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기관인 하남산단관리공단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이 입주하려는 공간은 올해에만 6930명이 직업교육과 언어교육을 받아왔는데, 이전 공사로 길게는 1년 가량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남산단 입주 기업 관계자는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하남산단 입주를 반기는 기업인은 없을 것”이라며 “하남산단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건물은 민주노총에게 내어준다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성과 확산 워크숍 개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29일까지 양일간 여수에서 '기업멘토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성과확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진흥원이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추진 사업과 관련 성과를 돌아보고 기업 대표자 및 직원 간 연대감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우수사례 발표, 전문가 특강, 팀 빌딩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사례는 기업멘토형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영현빵집 윤예지 대표가 발표했다. 영현빵집은 멘토기업의 기술을 전수받아 레시피 개발 및 상품화에 성공해 정부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어 흥

진실 강사가 '폭력을 높이는 스피치의 비밀'을 주제로, 김종한 강사가 '챗GPT의 효과적 활용'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에 나섰다. 팀 빌딩 프로그램에서는 참여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인용 진흥원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은 물론, 청년 창업기업과 선배기업들 간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협업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은 2023년에 사업화 지원을 받은 청년 기업들이 2024년에 채용한 청년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2개년 사업

으로,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청년 인구 유입·정착을 목적으로 하며, 목포·해남·영암·진도 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54.48	(-1.43)
↓ 코스닥	675.84	(-2.35)
↓ 금리 (국고채 3년)	2.567	(-0.040)
↑ 환율 (USD)	1404.25	(+9.55)

### 거래액 증가율 역대 '최저'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대비 0.6% 증가한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 결과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0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조2845억원으로 전년 동월(20조1547억원) 대비 1298억원(0.6%)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동향 개편(2018년 1월) 이후 역대 최소 증가폭이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말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고, 올해 4월까지도 전년에 견줘 10% 가량 거래액이 증가하는 등 급성장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은 지난 5월

7.6%를 기록해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니, 7월(5.1%), 8월(2.0%), 9월(2.2%)에 이어 10월 0.6%를 기록하며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수 부진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온라인 채널에도 타격을 준 것이다.

실제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상품군별로 보면 이커폰서비스가 전년보다 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통신기기(-37%), 신발(-14.8%), 가방(-12.5%), 컴퓨터 및 주변기기(-10.7%) 순으로 줄었다.

지난 10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5조4227억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 가운데 76%를 차지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월(73.4%)보다 2.6%포인트 올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